

‘드록神’ 유럽을 들어올리다

첼시, 창단 107년만에 첫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뮌헨에 4-3 승부차기 승... 드로그바 맹활약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첼시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처음으로 제패하고 우승 트로피 ‘빅이어’를 가져갔다.

첼시는 20일(한국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치른 2011-2012시즌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 전후반까지 120분 동안 1-1 무승부를 기록한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첼시는 2008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승부차기에서 패한 지 4년 만에 다시 승부차기로 마침내 유럽 축구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을 포함해 ‘더블 우승’을 달성한 첼시의 로베르토 디 마테오 감독은 감독 대행으로는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뤘다.

전반전은 뮌헨이 이끌었다. 슈팅 숫자에서 13-2로 뮌헨이 크게 앞섰고 코너킥에서도 8-0 리드를 지켰다. 그러나 운이 따르지 않았다.

후반 들어서도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 뮌헨은 마침내 후반 38분 리베라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토마스 뮐러가 헤딩으로 받아 골망을 흔들었다.

공격에 몰린 첼시는 공격수 토레스를 교체 투입하고 반격에 나섰다. 첼시는 후반 43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코너킥을 드록바가 헤딩골로 연결해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연장전을 시작한 뮌헨은 연장 전반 4분께 첼시 페널티 지역에서 수비에 가담한 드로그바의 파울 반칙으로 귀중한 페널티킥 찬스를 얻었다. 하지만 로베리 찬 페널티킥은 첼시 골키퍼 페트르 체흐의 손에 걸려 뮌헨 홈팬들의 안타까운 탄성을 자아냈다.

뮌헨은 이후에도 득점 찬스를 두 차례 만들었지만 골로 연결하지 못해 승부차기로 끌려갔다.

승부차기에서 선축을 맡은 뮌헨에 선 1번 키커로 주장 필립 람이 나서 골을 넣었다. 그러나 첼시의 첫 번째 키커 후안 마타가 찬 볼은 왼쪽으로 몸을 던진 마누엘 노이어의 손에 걸렸다. 뮌헨의 2번 키커 고메스와 첼시의 2번 키커 다비드 루이스는 모두 골을 넣었다. 뮌헨에선 골키퍼 노이어가 세 번째 키커로 직접 나서 골을 기록했고, 첼시의 3번 키커 프랑크 람파도도 실수하지 않고 득점했다.

뮌헨의 다음 키커로 이비차 올리치가 나섰지만 실축의 주인공이 됐다.

첼시의 4번 키커 애슐리 콜은 차분하게 골을 성공시켜 스코어를 3-3 원점으로 만들었다.

뮌헨의 마지막 키커로 나선 슈바인 슈타이거는 긴장한 나머지 범칙하다가 볼에 발을 댄고 그 볼은 야속하게도 골문을 살짝 외면했다. 반면 첼시의 마지막 키커이자 이날 만화공의 주인공 드로그바는 승부차기 골을 성공시켜 팀의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환호 20일(한국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11-2012 챔피언스리그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결승전에서 맹활약한 ‘결승전의 사나이’ 드로그바가 우승컵인 빅이어를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탄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선 첼시의 드로그바가 골을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짓자 하프라인에 모여있던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이 비탄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첼시의 정신력 보여줬다”

‘결승전 사나이’ 드로그바

디디에 드로그바(34)가 첼시에 팀 창단(1905년) 후 첫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안겼다.

드로그바는 20일 오전 3시45분(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11~2012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후반 43분 극적인 헤딩 동점골을 터뜨려 1-1 상황을 만들었고, 승부를 연장전으로 이끌었다.

연장전에서 승부를 못가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는 다섯 번째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골을 집어넣어 첼시가 4-3으로 뮌헨을 꺾고 우승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첼시는 지난 2004~2005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뮌헨을 꺾고 4강행 티켓을 거머쥔 승리의 경험을 되살렸다. 당시 골을 터뜨리며 첼시의 승리를 이끌었던 드로그바는 이날 경기 종료 막바지에도 극적인 동

점골을 터뜨리며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하지만 드로그바는 이번 결승전에서 찬담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도 맞았다. 드로그바는 연장 시작 4분만에 페널티박스 안쪽으로 드리블하던 상대 선수 리베라의 발을 살짝 걸어 넘어뜨렸고, 뮌헨에 페널티킥 기회를 내줬다. 다행히 첼시 골키퍼 체흐가 키커로 나선 상대 선수 아르멘 로베리의 슈팅을 막아냈다.

행운의 여신은 드로그바의 편이었다. 드로그바는 3-3으로 한지 앞도 내다볼 수 없던 승부차기 상황에서 첼시의 마지막 키커로 나서 침착히 골을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드로그바는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 몇 년 간 노력했다”며 “첼시의 정신력을 보여줬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가슴 벅찬 순간을 만끽했다. /김일우기자 kib8@kwangju.co.kr

붕괴된 마운드 선동열호 좌초

KIA, 4-6... 롯데전 12연패



KIA 마운드가 중심을 잃으며 롯데에 4-6으로 패했다. 20일 롯데전 12연패로 선동열호가 좌초 위기에 몰렸다.

4월 불펜 대란에 이어 이번에는 선발 투수를 완수한 선수는 앤서니가 유일했다. 18일 롯데전에 출격한 앤서니는 ‘피출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등판했던 이날 5와3분의2 이닝을 책임졌다. 6피안타 3사구 3탈삼진, 4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김선빈과 최희섭의 송구실책이 빌미가 된 점수로 자책점은 1점에 불과했다.

6경기에서 KIA 선발진이 버틴 이닝은 21과3분의2이닝에 불과했지만, 홈으로 들어온 상대팀 주자는 29명에 달했다.

투수의 어깨를 든든하게 해줘야 할 내야진들까지 동시에 무너지면서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선발진이 기록한 점수 중 7점은 내야진의 실책에 의한 비자책점이었다.

‘꼬꼬마 키스톤’ 김선빈·안치홍의 불안한 수비에 3루에 투입됐던 윤완주의 송구실책, 최희섭의 송구실책 등 프로라기에 민망한 실수들이 속출하면서 투수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투수 왕국 재건을 향해 야심찬 출항에 나선 선동열호가 마운드 언덕 자 속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2안타... 7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30)가 7경기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타격감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0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인터리그 경기에서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최근 7경기 연속안타를 친 추신수의 타율은 0.258에서 0.266으로 올라갔다. 1-0으로 앞선 5회말 1사 1루에

서 타석에 나선 추신수는 우선상에 떨어지는 안타를 날려 1사 1-3루의 찬스를 만들었고 클리블랜드는 제이슨 김니스가 희생플라이를 쳐 2-0으로 앞섰다.

추신수는 7회에는 빠른 발을 이용해 3루쪽에 기습번트로 대고 살아나가 두번째 안타를 기록했다. 클리블랜드는 이날 2-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국립공원 16좌 고객원정대' 모집

▶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첫번째 산행 5월 25일(금) 당일 / 계룡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최 | MILLET | 주관 | Mtour

후원 | 63 광주일보사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 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